

주간 통일정세

2017-23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6.3	北 김정은, 약수공장 시찰...“인민 건강에 이바지해야”(연합뉴스)
		北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 의장에 생일 축전(연합뉴스)
		北 박봉주, 양강도 혜산 김일성 부자 동상 참배(연합뉴스)
	6.4	北 외무성 “美·유엔 제재책동, 규탄·전면 배격”(연합뉴스)
	6.5	北 김정은, 공군 비행술 경기대회 참관...올해로 4번째(연합뉴스)
		재등장 北 김원홍, 잇단 軍 훈련 참관...보직 바뀌었나(연합뉴스)
		北 외무성 국장, 핀란드 유럽평화연구소 이사장 면담(연합뉴스)
	6.6	北, 소년단 창립일 맞아 “김정은 아들딸로 준비해야”(연합뉴스)
	6.7	北 김정은, 소년단대회 연설...“제국주의 미워해야”(연합뉴스)
		北 내각 간부, 英대사관 방문해 테러 피해에 조의(연합뉴스)
6.8	北 김정은, 소년단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김여정 동행(연합뉴스)	
	北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美·中 꾸며낸 것” 주장(연합뉴스)	
	北 대표단, 장애인권리협약 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6.9	北 “신형 지대함 순항로켓 첫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연합뉴스)	
경제	6.4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연합뉴스)
		北 4월 석탄수출 ‘제로’ 기록...대북제재 여파(연합뉴스)
	6.7	北 고려항공, 문어발식 사업확장...“식품유통 진출”(연합뉴스)
	6.8	“北, 경제제재로 평양에 자원집중...불평등 심화”(연합뉴스)
		“북핵개발 지원 중단동향상, 페이퍼컴퍼니 20여개 동원”(연합뉴스)
	北 수산물도 대북제재 ‘유탄’?...中 단동서 ‘품귀 현상’(연합뉴스)	
6.9	“외화 밀반출 적발 북한인 급증 추세”(연합뉴스)	
	“北, 모바일 외화 결제 서비스 도입”(연합뉴스)	
사회 문화	6.4	北, 가뭄·기름값 폭등 이중고...힘겨운 ‘모내기 전투’(연합뉴스)
	6.8	“중국행 北고려항공 여객기 지난달 추락 위기 모면”(연합뉴스)
외교 국방	6.3	美 백악관 관리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 아닌 비핵화”(연합뉴스)
		매티스 “北에 군사력 쓸수 있지만 외교·경제 수단 우선”(연합뉴스)
	6.5	美 국무부 “北 도발적 언행 중단하고 대화 복귀하라”(연합뉴스)
北 신문 “평화 타령후 전쟁도발, 제국주의 상투적 방식”(연합뉴스)		

		호주, 북한 여행 금지조치...잇단 미사일 발사 제재(연합뉴스)
6.6		北,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에 “어리석은 짓” 비난(연합뉴스) 北 외무성 실무대표단, 러 방문...교류계획서 체결(연합뉴스)
6.7		유엔 군축회의, 안보리 결의 환영...“北, 도발 행위 중단해야”(연합뉴스)
6.8		美 NGA국장 “대북 위성정보 수집 강화”(연합뉴스) 中매체들 ‘북한 미사일 발사’ 주목...“지대함 탄도탄 추정”(연합뉴스) 너무 나가는 日...이번엔 ‘무력공격사태’ 대비 첫 훈련(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안보상 영향 없어...북한에 항의 안해”(연합뉴스) 멕시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북한 외교관 2명 감소”(연합뉴스)
		北, 美 톨러슨 대북 압박 발언 비난...“궁여지책 불과”(연합뉴스)
		中, 北미사일 발사에 “지역정세 긴장 고조 행위말라”(연합뉴스)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에 모처럼 ‘차분’ 대응...여당은 ‘반발’(연합뉴스)
		러시아 “北 잦은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EU,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14명 추가 제재...유엔 결의 반영(연합뉴스)
		프랑스,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연합뉴스)
		‘막가는’ 日여당, 아베에 “北기지공격능력 갖춰라” 이달중 요청(연합뉴스)
6.9		北,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로 국제제재 교묘히 ‘회피’(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6.3	강서약수공장 공개활동	안정수, 김용수, 조용원	-
6.5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	
6.7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석 및 연설	최룡해, 최태복, 리일환, 김승두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6. 3.

■ 北 김정은, 약수공장 시찰…“인민 건강에 이바지해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강서약수공장을 찾아 약수를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남포시에 있는 강서약수공장이 1973년 김일성의 지시로 세워졌으며 “장군님(김정일)과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지도와 배려 속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약수 생산기지로 전변됐다”고 밝힘.
- 김정은은 공장을 둘러보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샘 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 의장에 생일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86주년 생일(6월 3일)을 맞이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3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면서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여 꾸바(쿠바)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힘.
-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위원장’ 이외에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등 3개의 공식직함을 모두 기재함.

2017. 6. 5.

■ 北 김정은, 공군 비행술 경기대회 참관…올해로 4번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일 공군 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인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북한군은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했으며, 김정은은 올해까지 4차례 열린 경기대회를 모두 참관함.

- 경기대회에 앞서 김정은은 비행장에서 육·해·공군 및 노동적위군 의장대를 사열함.

2017. 6. 7.

■ 北 김정은, 소년단대회 연설…“제국주의 미워해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일 소년단 8차대회 연설에서 “제국주의자를 미워하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소년단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을 미워하고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원수들이 덤벼든다면 용감하게 싸울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독려함.
- 김 위원장은 “조선소년단은 혁명의 계승자, 당과 청년동맹의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조선 소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라며 “소년단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전도와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치켜세움.

2017. 6. 8.

■ 北 김정은, 소년단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김여정 동행(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소년단 8차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북한 노동신문 등이 8일 보도했는데, 신문은 “원수님(김정은)을 모시고 소년단 제8차 대회가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기념촬영 장소가 소년단대회가 열렸던 4·25문화회관 앞 광장임을 밝힘.
- 기념촬영에 앞서 소년단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소년단을 상징하는 붉은 색 머플러를 매주고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꽃다발을 건넨 소년단 대표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함.
- 이날 신문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꽃다발을 받는 김정은의 왼쪽 바로 뒤편에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검은색 투피스 차림에 환히 웃는 장면이 포착됨.

2017. 6. 9.

■ 北 “신형 지대함 순항로켓 첫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해상

- 순항로켓 시험발사를 보아주시었다”며 “국방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킨 순항로켓을 새로 연구·개발하고 첫 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함.
- 통신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경축 열병식에 등장했던 것이라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6. 3.

- **北 박봉주, 양강도 해산 김일성 부자 동상 참배(연합뉴스)**
 - ‘보천보전투승리’ 80주년 기념일(6월 4일)을 앞두고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간부들이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함.

2017. 6. 5.

- **재등장 北 김원홍, 잇단 軍 훈련 참관…보직 바뀌었나(연합뉴스)**
 - 올해 초 북한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 4월 재등장한 김원홍이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북한군 훈련을 잇따라 참관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이 전날 열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김원홍도 동행한 인물로 호명함.
 - 김원홍은 지난 4월 25일 창군 85주년을 맞아 북한군 군중 합동타격시위가 최대 규모로 열렸을 때도 김 위원장과 함께 훈련을 참관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북한군 야전훈련 참관에 잇따라 동행하고 있는 것임.
- **北 외무성 국장, 핀란드 유럽평화연구소 이사장 면담(연합뉴스)**
 -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2국 국장이 지난 1일 핀란드 국회 청사에서 국회의원인 페카 하비스토 유럽평화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2017. 6. 7.

■ 北 내각 간부, 英대사관 방문해 테러 피해에 조의(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간부들이 7일 영국 대사관을 찾아 런던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조의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 국가관광총국 일꾼들이 최근 영국에서 있었던 테러사건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조(주북) 영국 대사관을 조의 방문했다”고 전함.
- 이어 “그들은 테러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했다”며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임.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6. 8.

■ 北 대표단, 장애인권리협약 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다음 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리홍식 외무성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10차 장애자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미국 민간구호단체인 ‘킨슬러’ 재단의 신영순 대표는 이번 회의에 북한 장애인보호연맹 김문철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북한은 장애인보호연맹 위원장 대신 격을 높여 외무성 대사 직함을 가진 리홍식을 단장으로 선택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6. 3.

■ 北 “핵은 민족부흥의 상징·민족의 최고이익”(연합뉴스)

- 북한은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가 ‘민족부흥의 상징’이자 ‘민족의 최고이익’이라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의 핵은 평화 수호와 민족부흥의 절대적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비난하며 이같이 밝힘.
- 노동신문은 9천 자 이상 분량의 논설에서 “핵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고 민족부흥의 억만년 담보”라며 “조선의 핵은 순간도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최고이익”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신문은 “핵 대국이라고 으시대는(우쭐대는) 덩지(덩치) 큰 나라들이 미국의 핵 공갈에 주눅이 들어 전통적인 우호 관계까지 허물어버리고 있다”며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난함.

2017. 6. 4.

■ 北 외무성 “美·유엔 제재책동, 규탄·전면 배격”(연합뉴스)

- 북한은 4일 미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잇따라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책동은 우리의 핵 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 해체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함.
- 외무성은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역세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6. 6.

■ 北, 소년단 창립일 맞아 “김정은 아들딸로 준비해야”(연합뉴스)

- 북한은 소년단 창립 기념일인 6일 모든 청소년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소년단 제8차 대회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태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 없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행복상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의의 깊은 정치축전”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소년단원들이 건전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갈 수 있다”며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존엄 높고 강대한 백두산 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라고 치켜세움.

2017. 6. 8.

■ 北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美·中 꾸며낸 것”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제멋대로 꾸며내고 강압 통과시킨 제재 결의안”이라고 8일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지난 6일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 전원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와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는 우리의 핵무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질식시킬 것을 겨냥한 악랄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함.
-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중국이 제멋대로 꾸며내고 강압 통과시킨 ‘제재 결의안’을 ‘국제사회의 총의’로 포장하여 유엔성원국들에 내려 먹이고 있는 것은 강권과 전횡의 적나라한 표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 이사국들을 포함한 일부 나라들의 핵 및 미사일시험에 대해서는 함구무언 하면서 우리의 정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감히 시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7. 6. 4.

■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돈주’(신흥부유층) 등 개인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한 것으로 확인됨.
- 4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북한의 기업소법(2014년 11월 개정)을 보면, 제38조에서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 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인 2010년 11월 개정 당시의 기업소법에는 없던 내용임.

다. 경제 상황

2017. 6. 7.

■ 北 고려항공, 문어발식 사업확장...“식품유통 진출”(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고려항공이 항공권 판매와 택시회사 운영에 이어 최근에는 식품유통 분야에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7일 이 매체가 입수한 고려항공 제품 사진을 공개하며 고려항공이 식품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소개함.
- NK뉴스가 공개한 사진은 지난 3월 평양 고려호텔에서 판매되는 꿩고기 통조림을 촬영한 것으로, 통조림에는 ‘고려항공’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만, 통조림 아랫부분에 ‘보통교식료공장’이라는 제조업체 이름이 명시된 점으로 미뤄 고려항공은 자사의 브랜드를 이용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넘겨받아 유통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임.

2017. 6. 8.

■ “北, 경제제재로 평양에 자원집중...불평등 심화”(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원이 평양으로 집중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해 8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의 구조와 운영 특징 분석’ 주제의 논문에서 “대북제재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자원을 평양으로 재분배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힘.

- 연구원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시장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전에 방치됐던 생산 요소들이 시장을 통해 생산 시설로 이전하게 됐는데, 평양이 가장 많은 수혜를 봤다는 것임.

2017. 6. 9.

■ “외화 밀반출 적발 북한인 급증 추세”(연합뉴스)

-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북한인이 최근 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세관은 지난 7일 미화 2만5천 달러를 신고 없이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1명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힘.
- 극동세관 공보실은 해당 북한인이 가방에 돈을 숨겨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며 압수된 100달러 신권과 구권이 뒤섞인 현찰 다발을 공개함.

■ “北, 모바일 외화 결제 서비스 도입”(연합뉴스)

- 북한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를 인용해 9일 전함.
- NK뉴스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소식통을 인용, 평양 양각도호텔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화로 물건을 사거나 이동통신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보도함.
-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북한이 지난 2010년 출시한 전자결제카드 '나래'의 계좌에 외화를 먼저 입금하고, 휴대전화로 해당 계좌의 외화를 사용하는 방식임.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6. 4.

■ 北 4월 석탄수출 '제로' 기록...대북제재 여파(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4월 석탄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고 밝힌 유엔 회원국은 한 나라도 없었으며, 같은 기간 북한으로부터 유엔 회원국이 수입한 석탄 물량도 ‘제로’임.
- 회원국이 유엔을 속이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하지 않는 한 적어도 4월 한 달간 북한은 수출 주력상품인 석탄을 전혀 해외로 팔지 못한 것이며, 특히 중국이 지난 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직격탄을 입은 것으로 보임.

2017. 6. 8.

■ “북핵개발 지원 중단등홍상, 페이퍼컴퍼니 20여개 동원”(연합뉴스)

-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 적발된 중국 기업 단둥홍상(丹東鴻祥)실업발전이 북한과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동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함.
- 신문은 미국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은 단둥홍상에 제재 회피 방법을 문의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에 단둥홍상의 마샤오홍(馬曉紅) 대표는 2011년 6월 직원에게 지시해 파나마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함.

■ 北 수산물도 대북제재 ‘유탄’?...中 단둥서 ‘품귀 현상’(연합뉴스)

-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인기를 끌던 북한산 수산물이 최근 대북제재 여파 등으로 크게 줄면서 품귀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음.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민생 차원의 교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중국 당국이 북한 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마저 강화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8일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게와 조개 등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하는 단둥 동강(東港) 일대에서 이들 품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6. 4.

- **北, 기름-기름값 폭등 이증고…힘겨운 ‘모내기 전투’(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5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름값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지금의 기름값 급등은 앞으로 원유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너도나도 (기름을)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전함.
 - 이처럼 기름값 급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어려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뇌물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모내기 동원에 빠지는 북한 주민도 많다고 RFA는 보도함.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일 ‘모내기 전투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용천군과 염주군, 신의주시의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이 모내기 전투를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봄 가뭄으로 모내기 농사에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짐.

2017. 6. 8.

- **“중국행 北고려항공 여객기 지난달 추락 위기 모면”(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달 말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다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비상 상황을 당해 출발지로 긴급 회항한 사건이

-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러시아 관영 로시이스카야 가제타가 7일(현지 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고려항공 소속 투폴레프(Tu)-204 여객기가 지난달 25일 평양을 출발해 고도 9천200m 상공을 날며 중국 영공으로 진입할 무렵 동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날개 부품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여객기는 긴급 회항을 결정하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날아가 무사히 착륙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6. 3.

- **美 백악관 관리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 아닌 비핵화”(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닌 비핵화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멤버인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 담당 수석국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열린 미국 군축 협회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힘.
 - 포드 국장은 북한 정권에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낮추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북한의) 위협은 점증하고, 문제는 악화하며 긴장도 고조되고 있어 현상유지는 안정이 아니다”라며 미 당국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매티스 “北에 군사력 쓸수 있지만 외교·경제 수단 우선”(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쓸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외교·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 주제발표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대답함.

- 그는 “외교·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데 맞춰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을 시사함.

2017. 6. 5.

■ 미국무부 “北 도발적 언행 중단하고 대화 복귀하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잇따른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무장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적인 발언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
- 애나 리치-엘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에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함.

■ 北 신문 “평화 타령후 전쟁도발, 제국주의 상투적 방식”(연합뉴스)

- 북한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날 선 반응을 잇따라 보이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타령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평화라는 광고판을 들고 상대방이 헤이된(헤이한) 틈을 타 불의에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침략방식”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역사에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있던) 나라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녹아난 쓰라린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총구 앞에서 조는 자멸적인 짓을 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평화 타령에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6. 6.

■ 北,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에 “어리석은 짓”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일 트럼프는 빠리(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제일주의’가 빠리협정 탈퇴에 이어진 것은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판함.

2017. 6. 8.

■ 美 NGA국장 “대북 위성정보 수집 강화”(연합뉴스)

- 로버트 카딜로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국장이 대북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인공위성 전문매체인 ‘스페이스 뉴스’를 인용해 8일 보도함.
- 카딜로 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텍사스에서 열린 연례 지리정보 관련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대북 정보수집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 그는 이어 인공위성 등을 통한 대북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앞으로 NGA가 대북 정보수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힘.

■ 北, 美 킬러슨 대북 압박 발언 비난…“궁여지책 불과”(연합뉴스)

- 북한은 8일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무기 전략을 전환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6일 뉴질랜드를 행각한 미 국무 장관 킬러슨이 공동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핵무기개발 계획과 관련한 전략을 재고려하도록 압박하는데 합세해 나서라고 쫓아냈다(외쳐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킬러슨의 이번 망발은 미국 내외에서 더욱 높아가는 저들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비난을 무마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압박 책동에 매여 달려보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비꼬았음.

나. 북·중 관계

2017. 6. 8.

■ 中매체들 ‘북한 미사일 발사’ 주목..“지대함 탄도탄 추정”(연합뉴스)

- 북한이 8일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동해로 발사하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속보로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임.
-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연합뉴스를 인용해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수 발 쏘았다고 긴급 기사로 전했으며, 신화통신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날 오전 수발의 발사체를 쏘다”면서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관영 CCTV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수발의 발사체를 쏘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날 오전 방송 중 속보로 보도함.

■ 中, 北미사일 발사에 “지역정세 긴장 고조 행위말라”(연합뉴스)

- 북한이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하자 중국 정부가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 위반 아니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함.
- 화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함과 동시에 오늘 오전에 쏜 발사체의 성질에 대해 서로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것도 주의하고 있다”고 밝힘.

다. 북·일 관계

2017. 6. 8.

■ 너무 나가는 日...이번엔 ‘무력공격사태’ 대비 첫 훈련(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비해 다음달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에서 외부로부터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 훈련을 한다고 NHK가 8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이나 아키타(秋田)현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한 훈련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훈련은 유사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한 국민보호법에 따라 경찰과 소방, 자위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임.

■ **日 “北미사일, 안보상 영향 없어…북한에 항의 인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8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로 인한 안보상 영향이나 일본 측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나 대북 항의는 하지 않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발사 미사일이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는 이전부터 북한의 행동,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봐가면서 적절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에 모처럼 ‘차분’ 대응…여당은 ‘반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8일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고 북한에 항의도 하지 않는 등 모처럼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여당인 자민당은 정부가 거둬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익숙해져 대응이 소홀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옴.
-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 일본의 영해는 물론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NSC를 소집하지 않음.
- 그러나 자민당의 나카이 도시히로(二階健博) 간사장은 이날 열린 당 북한핵실험·미사일문제 대책본부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으며,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익숙해져 (정부의) 대응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오늘은 정부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함.

2017. 6. 9.

■ **‘막기는’ 日여당, 아베에 “北기지공격능력 갖춰라” 이달중 요청(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이달 중 공식 요청할 예정임.

- 9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 보유, 미사일 방어망(MD) 확충,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부대 창설이 핵심임.
- 조사회는 이번 제안을 올 하반기에 정부가 검토작업을 시작하는 2019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임.

라. 북·러 관계

2017. 6. 6.

■ 北 외무성 실무대표단, 러 방문…교류계획서 체결(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실무대표단이 지난 5일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오승호 유럽 1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실무대표단이 로씨야(러시아) 외무성의 초청으로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면서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리크 러시아 외무부 국장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힘.
- 이어 협상에서는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로씨야연방 외무성 사이의 2017년~2018년 교류계획서가 체결되었다”고 전함.

2017. 6. 8.

■ 러시아 “北 잦은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에 우려를 표시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이루어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 “최근 들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행보는 역내 긴장을 더 심화시킨다”고 비난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6. 5.

■ 호주, 북한 여행 금지조치…잇단 미사일 발사 제재(연합뉴스)

- 호주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자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5명에게 호주 여행금지 및 금융제재를 부과함.
-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2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고 있어 이런 자체적인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힘.
- 비숍 장관은 호주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 추구를 규탄하고 포기 압력을 가하는 국제사회와 계속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함.

2017. 6. 7.

■ 유엔 군축회의, 안보리 결의 환영…“北, 도발 행위 중단해야”(연합뉴스)

- 유엔 군축회의 참가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로버트 우드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는 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새 결의는 거듭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에 충실하고 투명한 결의 이행을 강조함.
- 우드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함.

2017. 6. 8.

■ 멕시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북한 외교관 2명 감소”(연합뉴스)

- 멕시코가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수가 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보고서는 멕시코 외교부의 외교관 현황자료를 인용해 2012년 멕시코 내 북한 외교관은 7명이었으나 현재 5명으로 줄었다고 전했으며,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2016년부터 북한 외교관 수는 5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또 2321호에 따라 현재 북한 공관과 북한 외교관들이 멕시코에서 한 개씩의 금융계좌만을 보유하도록 제한받고 있다고 밝힘.

■ EU,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14명 추가 제재…유엔 결의 반영(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14명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힘.
- EU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 자산동결과 국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추가함.
-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며, 추가 제재 대상은 국외에서 간접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포함됨.

■ 프랑스,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연합뉴스)

- 프랑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프랑스 외무부는 장이브 르드리앙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이어 외무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2356호가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6. 9.

- 北,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로 국제제재 교묘히 '회피'(연합뉴스)
 -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지대함 순항(크루즈)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함.
 - 9일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은 동체 형상이 2015년 2월 신형 고속함에서 발사한 장면이 첫 공개됐던 함대함 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도 동체가 KH-35와 동일한 형상으로 분석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7		이임 주한 미해병사령관 “한국에 미해병작전부대 영구주둔 필요”(연합뉴스)
			“사드, 한국방어에 필요한 것…韓의 사드 논란 이해 못하겠다”(연합뉴스)
	6.8		美 “사드배치 동맹의 결정-철회될 일 없다는 韓공식입장 믿는다”(연합뉴스)
			美 “사드배치 동맹의 결정-철회될 일 없다는 韓공식입장 믿는다”(연합뉴스)
	6.9		갈루치 “文대통령, 사드 배치 연기든 중지든 할 수 있어”(연합뉴스)
			로이스 “사드, 韓방어에 매우 중요…환경우려 빨리 해소돼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6	달라진 한중 관계…새정부 출범 후 첫 민관 경제협력 모색(연합뉴스)	
	6.7		中, 韓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한국 내 논의 주시”(연합뉴스)
	6.8		中 “중국과 러시아는 韓사드배치에 반대…긴밀한 소통·조율”(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3	한미일, 北위협 대응 정보공유·연합훈련 강화 합의(연합뉴스)	

	6.4	“한일 국방장관, 정보보호협정 안정적 운용 합의”(연합뉴스)	
		丁·아베 “한일 정상회담·서틀외교 조속히 정상화”(연합뉴스)	
	6.8	한중일 “북극과학분야 협력사업 발굴하지”...공동성명(연합뉴스)	
		정의장, 日의회서 “北미사일발사 유감...북핵해결에 한일 협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6.6	한-러 첨단과학 전문가들, 모스크바서 협력 확대 방안 모색(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5		中,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촉구에 “노력하고 있다” 반박(연합뉴스)
		美 “국제문제, 돈으로 해결 안 돼”...中에 對北압력 강화 촉구(연합뉴스)	
			中, 미일국방장관 회동 겨냥 “남중국해 개입말라” 반발(연합뉴스)
	6.6		美 기후협정 탈퇴는 “큰 실수”... 중국·EU '후진 없다'(연합뉴스)
			시진핑 “美·中 관계 비바람 속 발전...양국에 큰 이익”(연합뉴스)
			中, 미국의 텐안먼 사건 언급에 “내정 간섭” 강력 반발(연합뉴스)

	6.7	中, 美国무의 '북한과 대화' 언급에 반색...협상노력 재촉해야(연합뉴스)	
		美国방부 “中, 잠수함 전력강화...2020년에 최대 78척 보유할 것”(연합뉴스)	
	6.8	中전문가들 “美 '중국 군사보고서' 과장·왜곡 일관” 맹비난(연합뉴스)	
		美国방부, 올해 연례보고서에도 '대만독립 반대' 명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3		日방위상 “북핵위협 새 단계 진입...미일동맹 더욱 강화”(연합뉴스)
			日방위상 “한일 위안부 최종 합의...일본 의무 다했다”(연합뉴스)
	6.7		日 외무 부대신 “백악관 보좌관, 위안부 합의 제대로 이해” 주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5		푸틴 “행사장 옆자리 美플린과 제대로 대화 안했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5		日 아베 “中의 '일대일로', 조건 맞으면 협력하겠다”(연합뉴스)
		中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진입(연합뉴스)	
	6.6	中, 아베의 일대일로 협력 발언에 “서로 이득” 반색(연합뉴스)	
		“日, 내년부터 중일 정상 상호 방문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6.6		러시아 해군 군함, 첫 홍콩 기항...중·러 밀월 과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6. 7.

■ 이임 주한 미해병사령관 “한국에 미해병작전부대 영구주둔 필요”(연합뉴스)

-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소장)은 6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와외 회견에서 미 육군, 해군 및 공군과 달리 해병대는 한국에 작전부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 주둔 해병대원들이 한국군과의 훈련을 위해 교대로 파견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힘.
- 오는 14일 이임하는 헤드룬드 사령관은 또 포항의 캠프 무적 근무자들을 포함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원들은 한국군과의 훈련 업무 조정과 타군과의 연락 등을 주 임무로 하는 75명에 불과하다며, 이 병력은 영구 주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했다면서, “해병대가 전투할 곳 가운데 아마도 한국이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평가함.

2017. 6. 8.

■ “사드, 한국방어에 필요한 것…韓의 사드 논란 이해 못하겠다”(연합뉴스)

- 덕 더빈(일리노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드의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함.
- 더빈 의원은 이날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함.
- 그는 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으나 브룩스 사령관과 그의 팀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함.

■ **美 “사드배치 동맹의 결정-철회될 일 없다는 韓공식입장 믿는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힘.
-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추가 배치는 해당 사업면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이같이 언급함.
- 그는 현행 사드 장비와 향후의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선 “사드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함.

■ **무역협회 미국 정·재계 인사 면담…“한미FTA는 모범적”(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이 대미 경제협력 사절단 단장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주요 정·재계 인사를 만나 한미 경제는 큰 틀에서 균형 관계임을 강조함.
- 이번 방미에서 김 회장은 헤리티지 재단 에드윈 풀너 회장, 테드 코크란 상원 세출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상원 의원, 루 발레타 하원 의원 등을 만났으며 그는 면담을 통해 “미국은 한국전 참전부터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함.
- 최근 미국 내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양국 최고의 협상 전문가들에 의해 이익의 균형을 맞춘 모범적 FTA”라고 평가함.

■ **갈루치 “文대통령, 사드 배치 연기든 중지든 할 수 있어”(연합뉴스)**

-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문재인은 대통령이다. (배치) 연기든 중지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함.
-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소장 취임 행사에서 이같이 밝힘.
- 다만 그는 “그 결정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사드 배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내 기억으론 배치 결정이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덧붙임.

2017. 6. 9.

■ 로이스 “사드, 韓방어에 매우 중요…환경우려 빨리 해소돼야”(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부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속한 검토와 신속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함.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드는 점증하는 김정은의 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대북제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게 하는 만큼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7. 6. 6.

■ 달라진 한중 관계…새정부 출범 후 첫 민관 경제협력 모색(연합뉴스)

- 6일 시안(西安)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실크로드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안 총영사관과 산시(陝西)성 상무청은 지난 5일 시안에서 한중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방중한 뒤 양국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첫 행사임.
- 이강국 총영사는 이번 포럼에서 “중국 개혁개방 이래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프로젝트인 2012년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 이후 한국과 산시성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왔다”면서 “양측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리성룡 부청장은 “한중 수교 25주년 이래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했고 이에 따라 산시성과 한국의 경제협력도 양과 질 측면에서 지속해서 확대됐다”면서 “산시성 정부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조해오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기업이 협력해 발전하길 바란다”고 화답함.

2017. 6. 7.

- 中, 韓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한국 내 논의 주시”(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중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변함없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대해 평론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 내에서의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답함.
 - 화 대변인은 이어 사드 문제와 관련해 '딱 한마디만' 하겠다며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명확하며, 일관되고 확고하다. 중국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함.

2017. 6. 8.

- 中 “중국과 러시아는 韓사드배치에 반대…긴밀한 소통 조율”(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사드 장비 추가 배치가 연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는데 결연히 반대하며 그 입장은 굳건하고 명확하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략 균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2017. 6. 3.

- 한미일, 北위협 대응 정보공유·연합훈련 강화 합의(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자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한미일 3국이 발표한 공동 언론 보도문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은 정보공유 증진, 활발한 3자 연습 시행, 상호운용성 발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3국 군간 실질적 협조 증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함.

2017. 6. 4.

■ “한일 국방장관, 정보보호협정 안정적 운용 합의”(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함.
- 이나다 방위상에 따르면 한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GSOMIA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
-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GSOMI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한일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2017. 6. 8.

■ 丁·아베 “한일 정상회담·서틀외교 조속히 정상화”(연합뉴스)

-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과 서틀외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정 의장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뤄진 아베 총리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관계를 긴밀히 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중단됐던 양국간 정상회담이나 서틀외교도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라고 말함.
- 그는 특히 “경제나 북한문제, 이런저런 현안들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협력하자고 했다”면서 “과거에는 양국간 관계가 어려울 때 가동 가능한 인적자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통’, ‘일본통’의 복원을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함.

■ **한중일 “북극과학분야 협력사업 발굴하자”...공동성명(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은 8일 도쿄에서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를 열어 북극 과학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음.
- 3국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중일은 북극해 태평양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연구 및 북극해 동시조사(SAS)의 일환으로 2020년 하계 국제 공동 크루즈의 환북극 해양관측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3국 협력사업을 각국 연구자를 통해 발굴하기로 했음.

■ **정의장, 日의회서 “北미사일발사 유감...북핵해결에 한일 협력”(연합뉴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일본 의회 지도자들은 8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함.
- 북한이 지대함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정 의장은 도쿄에 위치한 일본 중의회와 참의회를 차례로 찾아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 의장과 다테 츠이치(伊達 忠一) 참의원 의장 등을 만남.
-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북한이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함.

라. 한·러 관계

2017. 6. 6.

■ **한·러 첨단과학 전문가들, 모스크바서 협력 확대 방안 모색(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의 첨단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 및 연구 성과 공유 등의 협력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
- 양국의 항공·우주, 원자력,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연구재단과 러시아 스콜코보 재단 및 기초연구재단이 공동 주관한 '제1회 한·러 과학기술의 날' 포럼에 참석해 기존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 원자력 분과 논의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원전은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법이며 원전 기술 연구개발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힘.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6. 5.

- **中,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촉구에 “노력하고 있다” 반박(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자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섬.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돈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북한 문제 등에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함.
 - 화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데 크고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이런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힘.

- **美 “국제문제, 돈으로 해결 안 돼”…中에 對北압력 강화 촉구(연합뉴스)**
 -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해 돈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함.
 - 미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호주 시드니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함.
 -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생산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중국이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함.

- **中, 미일국방장관 회동 겨냥 “남중국해 개입말라” 반발(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3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대화)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만나 중국의 주권문제인 남중국해와 관련해 무책임하게 발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함.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미·일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 측은 미국과 일본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을 유의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하며 반대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및 인근 수역에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각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 자유를 누리는 것은 존중하지만 일부 국가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쓰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2017. 6. 6.

■ 美 기후협정 탈퇴는 “큰 실수”… 중국·EU ‘후진 없다’(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결정에도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이 협정 준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정이 성공할 수 있게끔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를 방문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만나고 나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탈퇴 결정이 큰 실수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밝힘.
- 투스크 의장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서 공동노력을 배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연대와 전지구를 위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있든 없든 기후변화 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 발전은 지속한다고도 함.

■ 시진핑 “美·중 관계 비바람 속 발전…양국에 큰 이익”(연합뉴스)

- 6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미·중 관계가 비바람 속에 발전해왔다면서 양국에 큰 이익을 줬다고 평가함.
-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은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비바람 속에 발전해왔다”면서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줬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끌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중국과 친선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주 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해 힘써왔다”고 화답함.

■ 中, 미국의 텐안먼 사건 언급에 “내정 간섭” 강력 반발(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89년 발생했던 중국의 텐안먼(天安門)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틸러슨 국무장관이 텐안먼 사건 28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자 “미국은 편견을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라”고 비난함.
- 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1980년 말 정치 격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국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주장만 가지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반박함.

2017. 6. 7.

■ 中, 美국무의 ‘북한과 대화’ 언급에 반색…“협상노력 재촉해야”(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전략을 전환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색하고 나섬.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틸러슨 장관의 관련 태도를 주목했다”면서 “중국 측도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방의 합리적인 안전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언급함.
- 화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로 되돌아가는 올바른 궤도가 관건이 되는 시기에 처했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확산을 막는 노력에 힘쓰면서 동시에 협상의 노력도 재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美국방부 “中, 잠수함 전력강화…2020년에 최대 78척 보유할 것”(연합뉴스)

- 7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중국이 2020년까지 잠수함을 70척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현재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5척,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함수함 4척, 공격형 디젤 잠수함 54척 등 모두 6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
- 미 국방부는 연차보고서에서 또 중국이 2020년대 초에는 신형 전략 핵추진 잠수함 제조에 나서는 한편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7. 6. 8.

■ **전문가들 “美 ‘중국 군사보고서’ 과장·왜곡 일관” 맹비난(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왜곡과 과장으로 일관됐다고 맹비난함.
- 예비역 소장 출신인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감군협회 연구원은 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방비를 통해 중국 위협론을 선동하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속임수”라며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비난함.
- 쉬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국방비 규모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높은 국방비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함.

■ **미국방부, 올해 연례보고서에도 ‘대만독립 반대’ 명시(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고 평가함.
-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의 대만관련 부분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만연합보(聯合報)가 8일 전했다.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2007년 이후 쓰지 않아왔으나, 작년 발표 연례보고서에서 9년만에 등장한 이후 올해도 다시 쓰임.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대만연합보는 풀이함.

나. 미·일 관계

2017. 6. 3.

■ **방위상 “북핵위협 새 단계 진입…미일동맹 더욱 강화”(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가하는 안보 위협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일동맹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든 유엔 결의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日방위상 “한일 위안부 최종 합의…일본 의무 다했다”(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3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힘.
-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특별세션 주제발표 직후 관련 질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이 있었고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으로 합의했으며, 최종적인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함.
-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됨.

2017. 6. 7.

■ **日 외무 부대신 “백악관 보좌관, 위안부 합의 제대로 이해” 주장(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소노우라 겐타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6일(현지시간)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이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이러한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 등이 최근 외교 무대에서 한일 합의의 당위성을 잇달아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것임.
- 보도에 따르면 소노우라 부대신은 이날 포틴저 NSC 보좌관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2015년 말 이뤄진 한일 합의를 설명함.

다. 미·러 관계

2017. 6. 5.

■ **푸틴 “행사장 옆자리 美플린과 제대로 대화 안했다”(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커넥션' 핵심인물로 꼽히는 마이클 플린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특별한 개인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미 NBC방송이 4일(현지시간) 전함.
-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진행을 맡았던 NBC방송 여성앵커 메건 켈리와 별도 인터뷰에서 “당신과 나는 어제 저녁 처음으로 만났고, 오늘도 종일 같이 일했으며 지금도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지

않느냐”면서 “나와 플린 전 보좌관과의 관계보다 당신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관영 국제 TV방송인) RT 개국 기념 행사에 참석했을 때 옆자리에 어떤 (미국인) 신사가 앉아 있었다”면서 “나는 연설 뒤 그와 잠깐 어떤 얘기를 나눴고 곧이어 자리를 떠났다. 그와 거의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7. 6. 5.

■ 日 아베 “중의 ‘일대일로’, 조건 맞으면 협력하겠다”(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조건이 정돈되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도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이 지향하는) 환태평양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에 바람직한 형태로 융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일본으로서는 (일대일로에) 협력해 가고 싶다”면서도 “참가하는 각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의 반영이 협력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 申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진입(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이 5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 일본영해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중국 해경국 어선 4척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자국 영해에 침입한 것을 확인, 인근 해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함.
-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설치된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전환하고 정보수집과 경계 감시를 강화했으며 외무성은 주일 중국대사관에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전화로 항의함.

2017. 6. 6.

■ **中, 아베의 일대일로 협력 발언에 “서로 이득” 반색(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조건이 정돈되면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중국 정부가 반색하고 나섬.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일대일로 협력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대일로는 중요한 국제 공동 산물이며 개방과 포용의 발전 플랫폼으로 일대일로 합작은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일대일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모든 참가 측은 공평한 참가자이자 공헌자며 수혜자”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일대일로가 중·일 양국의 상호 협력 실현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과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함.

■ **“日, 내년부터 중일 정상 상호 방문 추진”(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6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 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이런 방안을 제시함.
- 양제츠 위원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해 앞으로 양국 정상 교차 방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함.

마. 중·러 관계

2017. 6. 6.

■ **러시아 해군 군함, 첫 홍콩 기항·중·러 밀월 과시(연합뉴스)**

- 러시아 해군 군함이 처음으로 홍콩에 기항해 중국과 러시아 간 밀월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6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유도탄 순양함인 바라크함과 군수지원함 페첸가함이 5일 홍콩 카이탁(啓德)크루즈터미널에 기항함.
- 알렉시아 울리아넨코 바라크함 함장은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홍콩특별행정구를 포함해 중국과 해군 협력을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 승무원들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민의 우애와 제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6.4	美 유엔대사 “인권이사회, 잔인함 눈가림하는 전시장인지 의문”(연합뉴스)
	6.7	UN 인권최고대표, 北에 인권특별보고관 협력 촉구(연합뉴스) 국제기독연대, LA서 ‘북 종교·인권탄압’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6.5	北, 종교단체 방북도 거부…“유엔제재 국면서 부적절”(연합뉴스)
	6.6	北, 종교인 접촉주민 간첩으로 체포(자유아시아방송) 北 장애인보호연맹 대표, 유엔회의 참석차 美 방문(연합뉴스)
	6.7	北, 군인들, 돈 받고 민간경비에 고용돼(자유아시아방송)
	6.8	北 어업권, 중국에서 안 팔려(자유아시아방송) 北, 휴대전화로 외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자유아시아방송)
	6.9	FAO “북한 올해 쌀 170만t 수확 전망”…지난해와 같은 수준(미국의 소리)
	6.5	정의장-여야원내대표, 8·15 이산상봉 결의안 합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6.3	美 국무부 “북한 억류 미국인 소재 파악 안돼…영사접견 1년 3개월 차단”(미국의 소리)
	6.5	평양인근에 신원미상 외국인 억류자 더 있다(자유아시아방송)
	6.6	캐나다 영국서 탈북자 ‘난민 인정’ 급감(미국의 소리)
	6.8	北 조평통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가능”(미국의 소리) 北,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 없이 이산가족 상봉 없다(연합뉴스)
대북지원	6.5	캐나다 NGO, 북한에 식료품 분배감시단 보내(자유아시아방송)
	6.6	美 NGO 방북…수도시설 설치, 간염 치료 목적(미국의 소리)
	6.7	EU, 대북 인도지원 활동 동영상 공개(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6. 4.

■ 美유엔대사 “인권이사회, 잔인함 눈가림하는 전시장인지 의문”(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일(현지시간) 세계 인권 문제를 주관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강하게 비난함.
- 이사회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들까지 회원국 자격을 유지해주면서 오히려 인권 유린 국가들의 ‘악행’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임.
- 헤일리 대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한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이 회원국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희생자들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주관 기구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이사회가 실제 인권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저 회원국 자격을 잔인함을 눈가림하는 데 쓰는 독재 정부들의 전시장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함. 그러면서 “이사회가 정치 대신 인권에 초점을 맞출 때 중요한 대의명분이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임.
- 그는 “이사회는 비전은 여전히 이를 수 있지만,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비전을 복원하고 세계 보편적 인권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은 유엔의 책임”이라고 강조함. 헤일리 대사는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사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사회 회원국 자격은 최악의 인권 유린국들이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투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7. 6. 7.

■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에 인권특별보고관 협력 촉구(연합뉴스)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당국을 향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자이드 대표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개막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 연설에서 많은 나라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설치 관련 결의안을 거부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함.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 비딧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 모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북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함.
-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만으로는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야 할 시급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함.

■ 국제기독교연대, LA서 ‘북 종교·인권탄압’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새들백 교회에서 북한의 종교탄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림.
- 토론회를 주최한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의 제프 킹 대표는 북한은 종교 탄압뿐 아니라, 인권 탄압도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 였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6. 5.

■ 北, 종교단체 방북도 거부...“유엔제재 국면서 부적절”(연합뉴스)

- 북한이 5일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줄줄이 거부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께 북측의 팩스를 전달받았다”며 “지난 2일 이뤄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한국이 적극 지지한 상황에서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함.
- 천주교·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국내 7개 종교가 회원 중단으로 참여하는 KCRP는 최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일 승인받은 바 있음.

2017. 6. 6.

■ 북, 종교인 접촉주민 간첩으로 체포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이 친척방문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종교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 온 북한 양강도 혜산시 위연동의 한 주민이 간첩죄로 체포됐다고 북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종교인을 만난 사실이 간첩죄에 해당됐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혜산시 위연동에 살고 있는 60대의 한 주민이 간첩혐의로 도 보위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6월 3일에 있었다”며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 온지 3일째 되는 날에 체포됐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간첩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보위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위연역 앞에서 직접 보았다”며 “당시 위연역 앞에는 보천보전투 승리 80돌을 맞으며 삼지연을 향해 떠날 준비를 갖춘 ‘백두산답사 행군대’ 약 3천명도 있었다”고 전함.
- 체포된 주민은 족쇄를 채운 위에 또 포승줄로 몸을 묶은 상태로 위연맥주공장 뒤편에 있는 마을에서 끌려나왔다며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한쪽다리가 불편해 보였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北대표단, 장애인권리협약 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다음 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리홍식 외무성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10차 장애자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미국 민간구호단체인 ‘킨슬러’ 재단의 신영순 대표는 이번 회의에 북한 장애인보호연맹 김문철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장애인보호연맹 위원장 대신 격을 높여 외무성 대사 직함을 가진 리홍식을 단장으로 선택함. 이는 북한이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리홍식은 지난 2015년께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에 대사 직함으로 참석해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비판하는 역할을 해 인권담당 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2017. 6. 7.

■ 북 군인들, 돈 받고 민간경비에 고용돼(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인민군 부대들이 개인의 운전차량이나 화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돈을 받는 사설 경비업까지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군부대들에 자동차와 화물의 경비를 맡기려면 돈이 꽤나 들지만 자동차와 화물을 다른 곳에 대고 알아서 지키는 것 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군인들이 돈을 받고 자동차와 화물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값이 저렴한 여인숙도 직접 소개해 준다”고 소식통은 전함.
- 이와 관련 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군부대들이 단순히 자동차를 보관해주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혜산시 송봉동에 있는 혜산여객버스 사업소와 혜산장거리운송 사업소들은 자동차가 적게는 30대, 최대 60대 이상이 있어 군부대까지 가서 세워놓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 소식통은 “운송사업소에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공장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쓰는 개인 자동차들”이라며 “혜산장거리운송사업소의 경우만 해도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변에 있는 8총국 병사 7명이 운송사업소까지 나와 교대로 경비를 서주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소식통은 “이처럼 매일 밤 자동차 경비를 서게 하려면 자동차 주인들이 돈을 모아 한 달에 북한 돈 35만원, 중국인민폐로 270위안을 내야 한다”며 “일단 돈만 받으면 마당에 자동차를 몇 대 세우든 군부대 지휘관들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소식통은 “혜산시 주둔 8총국의 경우 이렇게 받은 돈의 30% 정도를 부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나눠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비를 서는 병사들에게는 자동차 주인들이 술이나 음식을 따로 챙겨주고 있어 병사들 역시 경비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2017. 6. 8.

■ 북 주민들, 정치행사참여 기피(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주민들이 국가차원의 대규모 행사참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 4일 개최된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행사의 참가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북한당국이 참가자들에게 여비를 지급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6월4일 ‘보천보전투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가할

인원을 선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주민들은 중앙에서 조직한 정치행사들에 온갖 구실을 붙여 참가를 기피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한 목소리를 냄.

- 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보천보전투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가할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기업소들이 종업원들로부터 돈을 걷었다”며 “행사 참가자로 지명된 사람들에게 걷은 돈으로 참가비를 지급했다”고 말함.
- 소식통은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 80돌을 기념하는 행사는 평양에서 중앙기념보고대회가 있었고 평양과 양강도 혜산시에서 횡불행사가 진행됐다”며 “행사참가자들은 대부분 1만 명에 이르는 ‘백두산답사행군대’ 대원들이었다”고 덧붙임.
- “‘백두산답사행군대’는 각 공장기업소들에서 참가인원을 지정, 선발했다”며 “이들은 보천보전투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3천 명씩 나뉘어 보름간의 일정으로 백두산까지 도보로 행군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언급함.
- 소식통은 “해마다 6월부터 조직되는 백두산답사행군은 숙식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70리씩 걸어야 하는 고된 행군”이라며 “사람들이 서로 외면하고 있어 공장기업소들은 해마다 인원선발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함.

■ 북 어업권, 중국에서 안 팔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중국의 개별적 어선들을 상대로 어업권을 팔고 있으나 중국어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짐. 턱없이 비싼 어업권을 살 바엔 차라리 북한 해역에서 불법어로를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함.
- 북한당국이 중국 현지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북한 해역에서의 어업권을 팔려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철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함. 어업권 값도 비싸지만 여태껏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의 어업권이어서 중국 어민들의 의심만 샀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6일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한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가안전보위성 요원 5명과 어업권을 팔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와 도문시 일대를 훑으며 뛰었지만 고작 17장밖에 팔지 못했다”고 말함.
- 소식통은 “5월 초에 중국으로 파견된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은 ‘조선자원관리총국’ 명의로 발부된 동해 어업권을 1천장이나 가지고 나왔다”며 “하지만 어업권 1장의 값이 중국 인민폐 1만 위안이나 되어 현지 어민들은 코웃음만 쳤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소식통은 ‘조선자원관리총국’이라는 명칭은 자신도 처음 들어 본다며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에게 ‘조선자원관리총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가를 물어 보았는데 그들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함.

■ 북, 휴대전화로 외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휴대전화, 즉 손전화를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는 전자결제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8일, 최근 북한을 다녀온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양각도 국제 호텔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환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동통신 사용료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함.
- 전자결제는 지난 2010년 북한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는 ‘나래’ 계좌에 외환을 입금시킨 다음 휴대전화사용료,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서비스 요금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이미 북한돈으로 입금한 뒤 ‘전송’이라 불리는 전자결제카드를 휴대전화와 연결해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지난해부터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방식은 북한돈이 아닌 외환을 이용한 것이어서 주목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6. 5.

■ 정의장-여야원내대표, 8·15 이산상봉 결의안 합의(연합뉴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5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기로 함. 또한 인사검증 기준 마련 및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국회 운영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함.
-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설치에 관해서는 “주호영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소위 얘기를 꺼냈고, 실무 단위에서 바로 진행하자고 각당 대표가 합의함. 필요하다면 외부 자문기구도 두자고 했다”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6. 3.

- **국무부 “북한 억류 미국인 소재 파악 안돼…영사접견 1년 3개월 차단”(미국의 소리)**
 - 미국인 4명을 억류 중인 북한이 이들의 소재를 감춘 채 영사 접견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음. 또한 억류 미국인들이 북한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V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대사관 측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북한 당국에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스웨덴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워비어 씨를 방문한 게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접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현재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에겐 파울 씨에게 한 차례 허용됐던 영사 접견조차 큰 “혜택”으로 비춰질 만큼 외부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음.
 -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모기 2등 서기관은 지난 2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함.

2017. 6. 5.

- **평양인근에 신원미상 외국인 억류자 더 있다(자유아시아방송)**
 - 외부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다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얼마 전 북한인사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캐나다인 제임스 리(James Leigh) 씨는 평양 인근의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이틀 넘게 매 시간마다 불려가 심문을 받았고, 자신의 옆방에는 지난 4월 북한에 억류된 김상덕 전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김 교수 외에도 또다른 캐나다인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이 같은 곳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설명함.
 - 그(김 교수)는 나에게 유치장에 20-30명의 수감자들이 더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함. 정확한 수감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리 씨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갑자기 풀어줬으며, 석방 후 며칠 더 머무르는 동안에도 북한 당국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고 덧붙임.

2017. 6. 6.

■ 캐나다·영국서 탈북자 '난민 인정' 급감(미국의 소리)

- 한때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인기가 많았던 캐나다와 영국에서 지난 몇 년 사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탈북자가 급격히 줄어듦.
-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탈북자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지난 2일 'VOA'에 제공한 지난 9년 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탈북자 7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에 115명, 2012년에는 218명으로 크게 늘. 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1명도 없음.
-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이 통계가 북한을 제1의 박해국가로 기록한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면서, 북한 출신 가운데 한국을 제1의 박해국가로 기록한 사람은 한국 출신 난민 통계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한국 출신 숫자도 2012년 이후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함.
- 영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임. 영국 내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단 1명의 탈북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이는 영국에서 난민 허가를 받은 탈북자가 2007년 204명, 2008년 279명이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것임.
-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 정부가 2009년부터 탈북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임.
-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짐.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영국 내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함.

2017. 6. 8.

- 북 조평통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 가능”(미국의 소리)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국 내 탈북민 13명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관계자는 7일 평양에서 ‘AFP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의 종업원 12명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민 김연희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함.
 - 이 관계자는 “이들 13명을 북한으로 즉각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한과) 어떤 형태의 인도주의 협력도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힘.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 없이 이산가족 상봉 없다”(연합뉴스)
 -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조만간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 내 탈북여성 13명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선결조건으로 내걸.
 -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고위관리인 김용철은 7일 평양에서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앞서 작년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여성 김련희씨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식당(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12명은 지난해 4월 남성 지배인 1명과 함께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순함. 하지만 북한은 여종업원들이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당했다고 지속해서 주장함.

5. 대북지원

2017. 6. 5.

- 캐나다 NGO, 북한에 식료품 분배감시단 보내(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의 민간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의 강원도 원산 등 이 단체가 지원하는 고아원과 유치원 등에 분배 감시단을 파견함. 캐나다의 서부 밴쿠버에 위치한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분배 감시단이 올해

- 도착한 물품 수량과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퍼스트 스텝스에 따르면 분배 감시단은 약 일주일간 평안남도과 강원도 지역을 돌아보며 올해 북한에 지원한 메주콩과 복합미량영양소인 스프링클스의 분배를 확인하기로 함. 스프링클스는 14가지 영양소가 함유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분말임.

2017. 6. 6.

■미 NGO 방북…수도시설 설치, 간염 치료 목적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의료시설 내 수도 설치와 간염환자 치료를 위해 방북하였음. 간염 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현지 의료진에게 새로운 기술도 전수하고 있음.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난달 25일부터 3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음.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데 이은 올 들어 두 번째 방북임.
- 이 단체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이디 린튼 대표 등 15명이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병원에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간염 치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말함.
- 이 단체는 현재까지 15곳에 태양력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 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 적어도 세 곳 이상에 수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간염환자 치료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이 단체는 5일 공개한 소식지에서 지난해 9월 초 70여 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B형간염 치료 사업이 현재 500여 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간염 치료 관련 새로운 장비와 기술도 도입했다고 밝힘.

2017. 6. 7.

■EU, 대북 인도지원 활동 동영상 공개(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 인도주의지원사무국(ECHO)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재난 대비와 복구 활동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7일 함경남도 지역의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함.
- 유럽연합 인도주의 지원사무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약 30만 유로, 즉 미화 34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 유럽연합은 수해예방 지원 사업을 핀란드 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함. 핀란드 적십자사는 북한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에 주력하는 ‘농촌 재난관리 사업’을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업의 중점 사안은 북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알도록 미리 기술과 지식을 쌓는데 있다고 설명함.
- 가뭄과 홍수의 피해에 취약한 지역들에 제방 독을 강화하고, 민둥산에 산림을 복구하고, 경사지를 개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또, 핀란드 적십자사가 조선 적십자사 관계자와 지역 재난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훈련 등도 맡고 있다고 설명함.